

# 출판윤리

한양대학병원 영상의학과  
합창곡

**학습 목표:** 출판 윤리의 개념과 영역,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구체 목표:**

- 1) 출판 윤리의 개념과 원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 2) 출판 윤리의 예방, 검증, 사후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 3) 저자됨에 대해 이해한다.
- 4) 이중게재에 대해 이해한다.
- 5) 출판 과정의 여러 윤리적 함의에 대해 설명한다.

황우석 전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결과 조작을 비롯하여 일부 고위 인사들의 표절, 이중게재와 부당 저자표시 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부정직한 행위들에 대한 자정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승진, 승급 또는 연구비 신청 등에서 연구 업적이 거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논문의 수를 늘리고, 특히 SCI 등재잡지에 논문 게재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연구자가 많고,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의학연구에서의 윤리문제는 크게 연구윤리(Research ethics)와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로 나누고 있으며, 의학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선행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 사생활 보호측면의 의학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의학학술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동물실험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결과서 또는 동물실험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문적 가치를 상실한다. 그러나 출판윤리는 완성된 연구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논문 자체는 학문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판윤리는 부당 저자표시와 이중게재가 주요 내용이며, 최근 심사의 고의적 지연, 연구 아이디어의 도용, 게재 방해 등 편집인 또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에서의 부도덕한 행위도 새로운 출판윤리의 일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연구자의 부정직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연구윤리와 출판윤리가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수년간 의학학술지에서도 이중게재의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교육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출판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낮다는 점이다. 이중게재의 부당함과 그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면 “왜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나만 문제가 되느냐?”식의 도덕성의 해이가 우리 주위에서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KoreaMed는 PubMed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문헌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이중게재의 발견이 용이해졌고 실제로 많은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고 있다. 이중게재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회별로 편집위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출판윤리가 교육되고 있다.

## 1. 저자됨(Authorship)

### 1.1. 저자의 자격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 (authors vs contributors)가 되어야 한다.

저자의 자격은 물론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는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 등이 있다. 즉 저자의 자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기여 요소 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해야만 저자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논문에 기술 되는 저자의 선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저자 선정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기관연구에서도 저자되기의 기준은 만족되어야한다. 또한 단체 저자로서의 논문(group author manuscript)을 제출 할 경우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해야한다.

ICMJE(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는 저자 또는 공저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연구의 기본 개념설정이나 도안, 문헌조사나 자료의 수집, 임상 또는 실험적 연구, 분석과 해석의 전체 또는 일부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 ② 초안을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수정으로 결정적인 공헌이 있어야 하고,
- ③ 출판되기 직전에 최종본에 대한 마지막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역할에 모두 참여하여야 저자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 중 한 가지에 참여하여 공헌은 하였으나 공저자에 포함시키지 못한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감사문 (Acknowledgement)”에 표기함으로써 충분히 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공저자에 포함될 수 없는 연구자는 연구비를 획득한 사람, 자료 수집을 도운 사람, 연구실의 책임자, 연구팀의 일원, 기관 또는 조직의 장, 의학의 경우 임상 일과로 환자를 다룬 사람 등이다.

## 1.2. 부당한 저자표시와 유형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연구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었다고 논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논문이 취소되거나 저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한 저자표시 역시 연구자의 부정직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윤리에서 가정 먼저 취급되는 사항이다.

- 1) 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 2)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교환저자(swap author).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 4)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 1.3. 저자 수, 순서, 서명

저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앞으로 참고문헌 검색이나 인용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저자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팀에서 스스로 자문해서 저자의 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들의 순서는 연구팀의 joint decision of the co-authors에서 결정하여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때에 따라 요청 시 순서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잡지는 모든 저자들에게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1.4. 기여자(contributors),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일반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자를 기여자라고 하며 이들은 감사의 글에 언급한다. 이에 대한 ICJME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감사의 글에 기여자로 기재한다. 이 난에 기재되는 사람은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였거나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이다. 편집인은 언제나

지 저자에게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재료를 제공하였지만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혹은 참여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의 명칭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며, 그들의 기여 내용은 예를 들어 과학자문(scientific advisors), 정밀하게 검토(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를 수집(collected data),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으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과 결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여자는 논문의 감사의 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다.”

연구기금의 출처는 항상 밝혀야한다. 또한 재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기술해야한다.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작업을 도와준 동료, 간호사, 테크니션 등이 있으면 이곳에 기술하고, 작업에 있어서 독창성에 기여한 사람은 공동저자(부저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중복출판

연구 업적을 부풀리려는 욕망에서 이중게재는 발생된다. 국내의학 논문의 이중게재는 외국의 사례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언어가 크게 다르다는 점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이차게재라는 주장이 많고, 과거에 국제색인기관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학술지에서 국내 문헌을 외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구실로 이중게재를 권장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SCI search와 Medlin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중게재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수 연구업적을 주로 양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국내적인 특별 환경이 교수 업적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연구 논문은 출판되어야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판된 논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다. 투고 후 채택될 지의 여부,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흔히 동시투고(multiple submission)의 유혹을 받게 된다. 학술지에 따라서, 심사자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다르고 출판대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출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

### 2.1.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

근본적으로 이중게재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von Elm등은(이중게재의 유형을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6가지로 나누었는데, 1) 표본수가 같고 결과가 같은 것, 2) 표본수가 같으며 결과도 같지만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짜집기하여 만든 것, 3) 표본수가 같으나 결과가 다른 논문, 주로 분할출간이 해당된다.

4) 표본수를 늘리고 결과가 같은 것, 5) 표본수를 줄이고 결과가 같은 것, 6) 표본수가 다르며 결과도 다른 것 등으로 6)의 경우는 발견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표본 수가 다르지만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다. 즉 연구 대상의 모 집단을 나누어 발표하거나 같은 연구를 두 번 시행할 수도 있다.

의학학술지의 대부분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체(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에 따라 잡지를 출판하고 있다. ICMJE에서 이중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considerable parts)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흉부외과학 저명학술지 편집인들의 모임에서 이중게재의 기준에 대한 공동성명으로 구체적인 다음의 6가지 항목을 발표하였다. 1) 가설이 유사하다, 2) 숫자나 표본 크기가 유사하다, 3)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4) 결과가 유사하다, 5) 최소한 저자 1명이 공통이다, 6)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적다. 그러나 겹치는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유사하다’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중게재의 판정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Mojon-Azzi 등은 1997-2000년 간 70개 안과계 학술지에 실린 22,433 논문을 검색하여 60개(1.39%)의 이중게재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기준은 흉부외과계 학술지의 기준과 동일 한 것으로 사용했으나 표본의 수를 90%이상 겹칠 경우로 하였다.

완전히 같은 논문이 이중게재 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흔하지 않으며 간혹 동시 이중투고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이중게재 된 논문은 제목, 저자명, 표본의 수, 분석방법 등을 약간 변형시킨 것 들이다. 같은 대상이나 대조군이 사용된 연구도 대부분 중복출간에 해당된다. 두 개의 논문에서 저자가 한 명이라고 같으면 이중게재가 되며 모두 다르면 표절이 된다.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항은 출간된 논문과 논문내의 증례, 사진, 표 등에 대한 저작권을 저자 자신이 가진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일단 출간된 논문(용역 연구 결과보고서 포함)은 이미 저작권이 학술지에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논문이라도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해당 학술지 편집인의 허락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술지에 따라 투고규정에 저자가 편집인의 승인 없이 자기 논문의 내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 재사용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논문이라 할지라도 본문의 일부, 표, 그림의 중복 사용은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 되거나 이중게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이중게재는 아니지만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간 단위 (Least publishable unit)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출간하는 분할출간(divided, fragmentation or salami publication)이나 출간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덧부치기출간(redundant, overlapping, repetitive or imalas publication)도 중복출간에 포함된다.

이중게재의 기준은 학술지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회와 관련된 학술지는 학술대회에서 구연한 논문이나 학술전시는 완전한 논문으로 간주하지 않아 논문으로 전환하여 투고하였을 경우 이중게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Nature'와 'Science' 같은 엄격한 학술지는 논문의 표, 그림 등 지적자료가 포함된 학술발표나 전시는 이미 '새로운 것'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한다.

## 2.2.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의 특징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는 대부분이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정기간 후에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다. 출판의 간격은 1-2년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외국에 먼저 실린 논문을 국내 잡지에 이중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업적 경쟁이 심하고, 실제적으로 우수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우수 연구기관에서 이중게재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논문의 이중게재는 동시 중복투고의 경우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이차 투고시 논문을 약간 변형시킨다. 논문의 제목이 바뀌고, 저자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제1저자가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이중게재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수를 추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분석방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먼저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학술지간 이중게재는 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과 덧부치기출간(imalas publication)이 대부분이다. 이때에도 이중게재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학술지에 2차 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할 출간은 논문 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연구를 설계할 때부터 분할출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는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련의 연구로 얻어진 전체 자료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개의 논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출간에 해당된다. 중복출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논문제목은 유사하지 않게 만들고 저자진도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로운 기술, 기자재, 약품 등이 도입된 경우 국내에서 첫 저자가 되기 위하여 적은 증례를 가지고 서둘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증례 수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례수가 많아지면 다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쓰고 싶어지게 된다. 덧부치기출간이며 역시 중복출간에 해당된다.

## 2.3. 이중게재의 문제점

중복 출간은 비윤리적인 행위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학술지와 독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사에 심사위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고, 학술지의 지면을 소비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의 게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도 한다. 색인기관도 중복된 자료를 색인하여 질적 저하와 공간의 손실을 초래하고, 통계 수치의 오류를 초래한다. 독자나 연구자는 이중 검색으로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실망을 안겨준다. 아울러 이중게재 논문이 포함된 연구업적으로 다른 신청자를 물리치고 연구비를 획득했다면 연구비 수여기관의 질서를 문란

시킨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중게재는 실험의 결과를 왜곡시킨다. 실험자료가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되고, 같은 목적의 실험 결과들을 모아 메타분석하는 경우 표본이 중복 산정되어 결과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중게재는 저작권 침범에 해당된다. 확립된 학술지는 중복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고 시에 저작권이양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이양서에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라는 서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게재를 하는 저자는 정직하지 않은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 더욱이 결과가 일부 다른 경우에는 논문 전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이 논문을 찾은 독자는 실망과 허탈을 느끼게 된다.

일부 연구자는 채택률이 높지 않은 상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채택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유사 상위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채택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다음 학술지에서도 채택되면 논문을 취소하려는 것이다. 중복투고는 저작권이양서의 약속을 위반한 매우 부정직한 행위이며 게재 이전에 발견되면 편집인 간의 교류에 의하여 게재거부는 물론 저자들에 대한 처벌도 논의될 수 있다. 이중게재와 관련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저자가 채택된 논문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중게재인 경우에는 게재거부는 물론 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는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거쳐 채택된 논문의 취소를 허가하지 않는다.

#### 2.4. 이중게재의 빈도

최근 의편집에서는 이중게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2004년도에 발간된 KoreaMed 등재논문 중 무작위 추출된 455편(5%)에서 27편이 중복출판으로 확인되어 5.9%의 이중게재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적 연구 보고는 없으며 학술지별 또는 외과계, 안과계 등 유관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중게재의 빈도가 보고되어 있다.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크며 성형외과계 학술지에서 1%미만, 안과계 학술지 1.39%, 마취과계 학술지에서 8.3%, 이비인후과 학술지는 1.8%와 8.5% 등을 보고하고 있고, 외과계학술지에서도 22.3%의 중복게재를 발견했으며, 이중게재는 13.5%, 의심스러운 경우가 34%, 분할출간이 52.4%였음을 보고하여 분할출간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5% 전후의 이중게재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2.5. 허용되는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학술지와 편집인 기구에 따라 이중게재와 이차게재의 허용기준에 차이가 있다.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경우, 독자층이 다른 경우와 종설은 이중게재가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다(19-21).

ICJME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차 게재라는 명목으로 중복 출판을 허용한다(6).

1)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

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두 편집인들이 협상한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 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5)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이름, 전체 참고문헌]에 처음 보고 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승인 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번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학도서관에서는 번역을 “재출판”으로 간주하지 않고 원저가 출판되어 있고 메드라인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은 색인하거나 인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와 미국의 독자가 언어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차게제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 2.6. 출판윤리 위반자와 논문에 대한 처리

중복 출간된 논문이 발견되면 해당 학술지는 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며 저자 확인이 끝나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주의 서한을 발송하거나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논문이 취소됨을 게재하고 책임 저자들에게는 투고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저자가 이중게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하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 유권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 2.6.1.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저자에게 이중게제의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것을 요구하면 많은 저자들은 ‘투고규정을 읽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했다’, ‘원저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별 것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 ‘중복의 정도가 편집진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다’,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등으로 항변하지만 대부분은 처벌을 받아 드린다.

처리 방법은 COPE(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의 제안이 주로 인용되며 아래와 같다.

중복출간의 제재조치

- ①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교육적인 주의 서한 발송
- ② 재발 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 ③ 해당 기관장, 연구비 지원 기관에 공식 서한
- ④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 ⑤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 ⑥ 위반 저자, 연구진,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투고 금지
- ⑦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 ⑧ 상위기관(의협 등)에 통보 (고발)하여 조사 및 조치 취하게 함

### 2.6.2. 위반 논문에 대한 처리

논문의 취소 또는 색인의 취소는 용어의 설명과 다르게 취급된다. 즉 이미 출판되어 배포된 잡지를 모두 회수하여 재출판할 수 없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로 색인된 논문은 1건으로 등록되어 통계처리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삭제할 수 없다. 따라서 논문의 취소는 해당 학술지에 “Retraction” 또는 “Notice of Duplicate Publication” 등으로 게재하게 되고, 색인기관에서는 그 게재된 글을 해당 논문에 link시켜 그 논문이 다른 논문과 이중게재 되어 있음을 항상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정직함이 기본이므로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그의 모든 연구결과는 신뢰를 잃게 된다. 따라서 심각한 표절이나 자료의 날조가 발견되면 해당 저자의 과거의 논문까지 모두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구비의 부당한 사용,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다른 연구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행정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형사문제화 되지 않는다. 부정직, 부도덕한 윤리 위반행위이므로 기관에서 처벌 받게 되며, 나아가 해당 전문가 집단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 2.7. 이중게재에 대한 대책

유사한 목적의 논문이거나 대상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이지만 저자가 새로운 논문이라고 주장하려면 우선 저자는 이 원고를 먼저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에서 채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학술지는 과거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성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중게재의 가능성은 물론 새로운 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학술지내에서의 중복게재는 흔하지 않다. 같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을 원저를 숨기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부정직한 행위이다. 이중게재의 판단은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인의 역할이다. 따라서 유사성이 있는 논문이라도 저자가 새로운 것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솔직하게 편집인에게 밝히면 채택될 가능성도 증가되고 거부되더라도 이중게재의 오명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나 과거를 숨기고 투고한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채택될 기회는 적어지고 이중게재의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중게재를 없애기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학교,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수시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는 출판윤리에 관한 내용을 투고 규정에 포함시키고 자주 학술지에 편집인의 글로 공지하여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편집인은 투고자가 투고규정을 면밀하게 읽도록 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학술지의 출판윤리에 대한 방침을 이해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중게재의 우려가 있는 원고의 경우 편집인에게 미리 알리게 함으로서 심사 전에 이중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심사위원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중게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감시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중게재가 항상 같은 분야의 학술지 사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편집인 간에도 동료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공유하여 함께 출판윤리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ICMJE의 통일양식에서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자는 중복 혹은 이중 출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논문 제출이나 보고에 대하여 편집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과거 다른 잡지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언급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실려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복사해서 원고와 같이 제출하여 편집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연구자의 정직성을 강조하고 있다.